인신매매:
현대판 노예제 근절을 위한 10년간에 걸친 파트너십

"현대판 노예제로 인한 희생자들의 면면은 다양합니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른과 아이를 모두 포함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너나없이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과 자유를 거부당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육체적으로, 그리고 성적으로 가혹한 취급을 받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만 피난처가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현대판 노예제와의 전쟁과 관련된 진전과 도전을 기록하기 위해 미국 국무부에서 작성하는 2010년 인신매매(TIP) 보고서는 올해로 발간 10주년을 맞았다. 2000년에 미국에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VPA)'이 제정되었으며, 유엔에서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의 예방·억제·처벌을 위한 의정서'(팔레르모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팔레르모 의정서

팔레르모 의정서는 인신매매의 폐해와 각국 정부의 공동 대처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강제노동, 노예제, 준노예적 관습에서 비롯된 인신매매를 포함하여 일체의 인신매매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공감대가 최초로 형성됐다. 이 의정서는 각국 정부의 대응이 예방(Prevention), 범죄자 기소(Criminal Prosecution), 피해자 보호(Victim Protection) 등 이른바 '3P'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확고하지만 여전히 태동 단계에 있는 운동

지난 10년간 각국 정부는 인신매매에 관련된 기초적인 현실들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룩했다.

- 대부분의 국가에 현대판 노예제가 존재한다.
- 인신매매는 시장의 수요, 법률의 취약성, 솜방망이 처벌, 경제 불안에서 기인하는 유동적인 현상이다.
- 인신매매는 국가간의 이동 없이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에 맞선 지난 10년간의 집중적인 노력은 이 운동의 태동 단계에 불과하다. 여전히 세계 여러 나라가 인신매매의 실태와 최선의 대응 방안을 파악해나가는 과정에 있다. 정부가 피해자를 지원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보장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인신매매범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지금까지 세계 어느 나라도 갈수록 그 규모가 확대되고 변화무쌍한 이 거대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피해자

상업적 성매매보다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인신매매되는 피해자의 수가 더 많다. 인신매매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납치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노역에 참여했거나 본인 의사로 이주한 주민을 상대로 강압을 행하는 행위에 더 가깝다. 인신매매 피해자 중 상당수는 남성으로 구성된다. 인신매매범들은 농장, 공장, 사창가, 주택, 분쟁 지역 등 유형에 상관없이 여성의 노역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성적 폭력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다.

2010년 TIP 보고서 주요 통계 현황

- 세계 각지에서 1,230만 명의 성인과 아동이 강제노동, 채무 노예, 강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다. 전체 피해자 중 56퍼센트는 여성과 여아로 구성된다.

- 인신매매 시장의 연간 거래 규모는 320억 달러에 달한다.
- 전세계에서 피해자 49,105명의 신원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마지막으로 보고된 해(2008년)와 비교하여 59퍼센트가 증가한 수준이다.
- 전체 세계 인구 중 인신매매 피해자 비율: 주민 1,000명당 1.8명(아시아-태평양 지역: 1,000명당 3명)
- 2009년에 4,166명이 인신매매 사범으로 기소됐으며, 이는 2008년과 비교하여 40퍼센트가 증가한 수준이다.
- 팔레르모 의정서에 입각하여 국내 법률에 의해 인신매매범을 처벌하고 있지 않은 국가의 수: 62개국
- 피해자 송환을 방지하는 법률이나 정책 혹은 규정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국가의 수: 104개국
- 2010년 TIP 보고서에서는 23개국의 등급이 상향 조정됐으며 19개국은 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 미국과 키리바시는 2010년 TIP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국가 등급을 지정받았다.